

# 북한 '로동신문'에 나타난 '도서관' 관련 기사 분석\*

## An Analysis on the Library-Related Articles in the Rodong Shinmun of North Korea

송 승 섭 (Sung-Seob Song)\*\*

정 종 기 (Jong-Kee Jung)\*\*\*

### 목 차

- |                         |                            |
|-------------------------|----------------------------|
| 1. 서론                   | 4. 도서관 관련 주요 기사의 의미와 유형 분석 |
| 2. 북한의 주요 신문과 도서관의 특징   | 5. 결론 및 제언                 |
| 3. 도서관 관련 기사의 연대별 내용 분석 |                            |

### 초 록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한 축을 대표하는 북한의 신문과 도서관이 무엇을 지향하는 지를 살펴보고 북한의 도서관이 어떻게 역사적·문화적으로 발전해 왔는가를 고찰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의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지인 로동신문과 북한 도서관의 특징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음, 북한의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 속에 나타난 '도서관' 관련 기사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71년부터 2012년까지 로동신문을 검색한 결과, '도서관' 관련 로동신문 기사 62건이 도출되었다. 이 62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하여 주제별·유형별로 분석하였고, 북한 도서관의 구체적인 활동들이 어떠한 형태와 방법으로 구현되어 왔는가를 제시하였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what the Rodong Shinmun newspaper which represents the social communication of North Korea seeks, to search that the newspaper of North Korea consider the libraries to do certain roles in North Korea, and to review how these things, Rodong Shinmun and library, have developed themselves from historical and cultural aspects. First, it was reviewed whether the Rodong Shinmun and library had been closely related each other. Then, it was analyzed whether the formats and contents of the articles related with the libraries in the Rodong Shinmun had certain particular points or not. As the results, the 62 articles which were related with libraries were searched from 1971 to 2012 in the Rodong Shinmun and they had been analyzed by the aspects of subjects and styles. It was revealed that the actions of libraries in North Korea had been the special characteristics in formats and ways.

키워드: 북한, 도서관, 인민대학습당, 전자도서관, 로동신문

North Korea, Library, Grand Peoples's Study House, Digital library of North Korea, Rodong Shinmun

\* 이 논문은 2013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장(libsong6703@daum.net) (제1저자)

\*\*\*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ds2hfs@ks.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4년 1월 15일 최초심사일자: 2014년 2월 10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2월 11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1): 237-256, 2014. [http://dx.doi.org/10.4275/KSLIS.2014.48.1.237]

## 1. 서론

어느 국가나 매스미디어는 그 국가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기본 축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합일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북한과 같이 세계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더욱 더 클 것이다. 여러 매체 중에서도 일간지 신문은 모든 국민에게 매일매일 전달되므로 신문의 파급력은 당연히 높을 것이다. 또한 어느 사회보다 정치적 이념성 측면에서 그 영향력을 견지하려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신문은 그러한 사회를 반영하고 대표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 국가의 매스미디어로써 커뮤니케이션의 두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북한의 신문매체인 로동신문과 도서관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북한의 대표적인 공산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선택하여 로동신문 속에 나타난 '도서관' 관련 기사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도서관'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도서관 문화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며 북한의 도서관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도서관의 구체적인 활동들이 어떠한 존재 양식과 방법으로 로동신문에 나타난 기사들을 중심으로 구현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개발하여 활성화된 『디지털 아카이브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였다. 디지털 아카이브 검색시스템에 탑재된 기사 DB 범위에 있

어서 검색 가능한 연도는 1971년부터 2012년도까지의 로동신문 기사내용을 중심으로 실행되었다. 기사검색에 사용된 주요 키워드들은 '도서관'과 '도서실', '도서열람(실)', '인민대학습당', '독서' 등을 통해 예비 기사검색을 시도하였다. 사전 검색한 결과,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검색어인 '독서'로 도출된 기사들은 기사의 내용을 살펴 본 결과 본 연구의 취지와 관련성이 적어 주요 키워드에서 제외했으며,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 격인 '인민대학습당'은 검색 결과가 80건이 넘어 중요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일반 도서관과는 다른 유형으로 별도의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본 논문에서 주요 키워드로는 제외시켰다. 다만 '도서관'과 같이 연관 검색되는 기사 가운데 포함된 '인민대학습당' 관련 기사들은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고로 주요 키워드로 '도서관', '도서실', '도서열람(실)'을 통해 기사검색을 수행하였으며 본문 검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재목 이상으로 키워드가 나타난 기사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관련 기사를 발췌하였다. 주제 분석은 실시하되 유형 분석은 국내 신문과 같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신문지면에 따른 특성과 사진 게재 여부 등 주요 사항에 국한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1971년부터 2012년까지 로동신문 지면 중, 총 62면에서 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로는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북한 자료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 조사 결과가 완벽하게 연구의 목적과 의도를 반영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다만 이 연구를 통해 북한의 도서관 발전 과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역사적으로 조명해 보고, 북한 도서관 현장에서의 주

요 서비스 활동과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도서관 문화를 가늠해 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북한의 주요 신문과 도서관의 특징

### 2.1 북한의 주요 신문과 그 특징

북한당국은 '독보회' 등을 통해 공산당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주민들이 로동신문을 많이 읽게 하기 때문에 북한의 각 도서관마다 신문잡지 열람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지역별로는 신문잡지열람실이 도서관을 대신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당국은 신문매체의 사명에 대해 "모든 사회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인식에 따라 북한의 신문들은 우리나라로 보면 대부분 관보의 성향을 갖고 있다.

북한의 신문학 이론서인 '신문리론'은 신문의 기능으로 이데올로기 무장을 위한 선동선전 자적 기능,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대중을 조직하는 조직자적 기능, 그리고 공산주의적으로 바람직한 인간을 양성하는 문화교양자적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신문이 수령과 당의 방침을 주민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정치사회화의 도구, 계급투쟁의 사상적 무기로 동원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이른바

'주체언론'의 관점에서 신문이 견지해야 할 원칙으로 로동계급성과 당성의 원칙, 인민성과 대중성의 원칙, 그리고 진실성과 전투성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sup>1)</sup>

북한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문매체의 종류를 보면, 중앙지로는 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비롯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 그리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기관지인 청년전위 라는 3대 신문이 발행되고 있다.

북한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이전에는 주로 항일투쟁을 위한 기사내용들을 주로 다룬 신문을 발행하였다가 해방 이후에는 공산당의 노선을 관철시키거나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현재 이들 신문 중에서 국내에서 구독이 가능한 신문은 로동신문,<sup>2)</sup> 민주조선, 청년전위, 평양신문, 교원신문, 문학신문, 그리고 통일신보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45년 10월 로동당 창건 이후 북한은 <표 1>과 같이 공산당 기관지를 중심으로 해서 내각 기관지, 근로단체 기관지 등으로 다양하게 신문을 발행하였으나 각 신문매체의 주요 기사내용들은 공산당의 활동노선과 정책을 구현시키는 것을 일차적인 사명으로 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었으며, 부분적으로 각 신문의 특성에 맞게 편집되지만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의 원칙을 지키고 철저히 공산당의 지도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각 신문 내용의 본질 면에서는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김응섭. 1966. 『편성 리론과 실천』. 평양: 출판인쇄과학연구소. (주요내용 정리)  
 2) '正路'는 1946.9 '로동신문'으로 제호가 변경되었다.

〈표 1〉 북한의 해방 후 시기의 주요 신문

간행물명	창간일	성격	주요내용
로동신문	1945.11	당 중앙위 기관지	당 노선과 정책 해설, 주체사상에 대한 선전, 건설, 교육문화를 비롯한 각 분야의 성과 선전 등 • 매일 6면 150만부씩 발간
민주조선	1946.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및 내각기관지	법령, 규정 등 정부정책의 해설 및 대외 선전 등 • 주 6회(4면 4회, 6면 2회) 발간
청년전위	1946.4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기관지	주체사상 해설 선전, 청년동맹조직들의 사업 소개 선전 등 • 주 6회(4면) 발간
평양신문	1957.6	수도신문	당의 입장 대변, 계급교양과 집단주의 교양자료, 생활편의 자료 게재 등 • 주 6회(4면, 월요일 제외)
교육신문 (교원신문)	1948.4	교육부문 신문	당의 교육방침 해설, 교원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위한 모범사례 소개 선전 등 • 주 1회(4면) 발간
문학신문	1956.12	조선작가동맹 중앙위 기관지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문예이론 해설, 문학예술부문의 작품 편집 소개 등 • 주 1회(4면) 발간
통일신보	1972.8	무소속대변지	국내외 동포 대상으로 통일과 남한문제 취급, 소개 선전 등 • 주 1회(6면) 발간
The Pyongyang Times	1965.	해외 홍보용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영어와 프랑스어로도 기사를 발신하고 있으며, 세계 100여국을 배포 대상으로 삼고 있음 • 타블로이드판 8면으로 1주에 1회 발간

북한 신문들의 역할은 체제유지를 위한 선전 기능 수행에 1차적인 목표가 있으며, 북한체제의 정당화를 위한 여론조작 기능을 통해 선전선동의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다.<sup>3)</sup> 또한 북한 수뇌부에 대한 결사옹위를 위한 사상적 무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북한이 주장하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 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sup>4)</sup>

따라서 교원신문, 문학신문 등 북한의 일부 신문은 교육적 의미와 정보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철두철미하게 북한체제 선전을 통한 체제유지의 공고화를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 대다수 신문들은 이러한 편집의 기본방향이 정하여져 있음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민주사회에서와 같은 신문의 역할인 비판 기능과 알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신문역할들은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신문은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경제와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는 것을 숭고한 사명으로 하고 있다.”(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15』, p.339)  
4) “우리 당 출판보도물들은 자기의 창간을 선포한 때로부터 수령과 운명을 같이하여 왔으며 모든 활동을 철두철미 수령옹위에 복종시켜 왔다.”(1974.5.7., 로동신문 사설)

## 2.2 북한 도서관의 특징과 운영 체계

도서관이라는 기본 역할이 교육시설로 간주되기에 북한의 도서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교육은 근본적으로 1977년 9월 5일 공포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따라 수행된다.<sup>5)</sup> 여기에서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이기주의를 없애고,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과업을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고 제시함으로써 충직한 혁명투사로서 필요한 소양을 길러주는데 그 교육 목표를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005년 12월에는 새로운 교육법을 채택하여 그동안의 교육에 대한 각종 교시와 지침을 종합화함으로써 북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은 이러한 교육이념과 목표에 따라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계급의식을 고양시키고 공산주의형 인간으로 육성하며 또한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일하고 생활하며, 사회와 인민의 이익 그리고 공산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 바칠 것을 교양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영도 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교육이념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북한의 도서관은 바로 이러한 교육 이념을 지원하는 실행기관으로서 설립 목적을 갖는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북한의 사전적 개념으로 살펴볼 때, '도서관'은 “책을 비롯한 출판물들을 정비보관하고 사람들이

널리 읽을 수 있도록 빌려주는 문화기관, 우리나라 도서관은 도서선전과 책 읽기지도를 통하여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과정을 촉진하며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임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 하는 힘있는 수단이며 나라의 귀중한 문헌재부를 보관 관리하는 중요한 문화기관이다.”<sup>6)</sup>라는 의미가 바로 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도서관은 사회적 문화교양기관을 자처하고 있지만 그 근본 목적과 기능은 공산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혁명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의 외형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체제 구조상 북한의 도서관을 순수한 의미의 학술적 가치를 갖는 도서관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북한의 도서관은 당 중심의 국가도서관 체계를 갖추고 있다. 북한 조선로동당 산하 교육위원회의 정책과 지휘아래 내각 교육성의 교육위원회로부터 각 지역 및 지방도서관에 이르게 되는데, 지방 도서관은 해당 지역의 행정위원회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고 있다. 특히 다른 부처와 달리 중앙당 및 해당지역 당 위원회로부터 철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북한의 출판물이 교육과 함께 선전, 선동의 정치도구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서관은 도서관 유형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에 해당하는 군중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등 학술기관 성격의 과학도서관으로

5)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으로 이루어졌다(『김일성 저작집 32(1977.1 - 1977. 12)』, 1986, 조선로동당출판사. ).

6) 사회과학출판사 편, 1992, 『조선말대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p.760.

대별된다. 또한 <표 2>와 같이 소속에 따라 국가, 도, 시, 구역도서관 등 국가도서관망과 대학도서관 등 기관·기업소 도서관망 그리고 사회협동단체도서관망 등으로 나누어 대상에 따른 봉사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국가도서관망과는 별도로 취급하고 있는 군부대 도서관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7)</sup>

북한의 도서관별 종류와 도서관망은 씨와 날처럼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북한의 도서관망은 도서관의 유형과 소속에 따라 일정한 계열로 묶어놓은 도서관들의 체계로 정의된다. 각 도서관들은 대상 독자계층,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 소장 출판물의 특성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별에 따라 일정한 계열로 묶어놓은 도서

관들의 체계를 유형별 도서관망이라고 한다. 이렇게 유형별 도서관망과 소속별 도서관망이 하나로 결합되어 전국적인 도서관망을 이룬다. 북한에서는 지역별 배치원칙과 인민경제부문별 배치원칙에 따라 설치된 여러 가지 유형의 도서관들이 정연한 지도관리체계에 따라 전국적인 도서관망을 이루고 있다.<sup>8)</sup>

도서관 유형별로는 크게 군중도서관과 과학도서관으로 나누어지며 군중도서관은 다시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에 해당하는 성인도서관과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에 해당하는 학생도서관으로 나뉘어진다. 과학도서관은 우리나라의 대학도서관으로 종합대학에는 종합적인 과학도서관으로 단과대학에서는 전문과학도서관으로 구별하고 있다.

<표 2> 북한의 도서관망

도서관유형별/소속별	국가공공도서관망	기관·기업소도서관망	사회협동단체도서관망	
군중 도서관	성인 도서관	시, 구역도서관 군도서관 신문잡지열람실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도서관 공장도서관 광산도서관 수산, 립업, 건설, 운수, 문화, 보건부문 기관 기업도서관	농촌도서관 생산협동조합 도서관 수산협동조합 도서관 편의협동조합 도서관
	학생 서관	시, 군, 구역 학생서관	인민학교도서관 고등중학교도서관 학생소년궁전도서관	
과학 도서관	종합적인 과학서관	국가도서관 도서관	김일성종합대학과학서관 국가과학원서관 사회과학원서관	
	전문 과학 서관		대학서관 연구기관서관	

7) 북한 김정일은 2007년 1월 15일 첫 군부대 시찰로 인민군 제593 연합부대 지휘부를 찾아 군부대 도서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부대의 군인 모두가 열렬한 독서가로 자라나 열심히 학습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인민군 군인들은 높은 독서열을 가지고 책읽기를 생활화해 누구나 다 박식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7년 1월 15일 조선중앙TV, 연합신문 참조).  
8)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6)』, p.251.

### 3. 도서관 관련 기사의 연대별 내용 분석

#### 3.1 1970년대 북한 로동신문의 도서관 관련 기사 분석

'도서관' 관련 기사 분석은 검색이 가능했던 1971년 기사부터 10년 단위로 나누어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1970년대 '도서관' 관련 기사 분석내용이다(〈표 3〉 참조).

1970년대 '도서관' 관련 로동신문 기사는 전체 5건이 검색되었으며 10년간 북한의 도서관 상황을 5건의 기사가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니와 전체적인 북한의 도서관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몇 가지 주요 내용은 유추할 수 있다.

먼저 1971년 4월 22일자 로동신문 기사, “조선의 어머니”의 내용을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요 활동 중에 하나로 독자들의 발표모임

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발표 모임의 성격이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의 생애와 혁명 활동에 치중해 있다는 것은 이 시기의 북한 도서관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sup>9)</sup>

다음, 1972년 기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 ‘마이니찌신문’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의 내용을 보면, 이 시기 비동맹국가인 쿠바, 이라크 등 여러 나라에 김일성도서관, 보천보도서관 등과 같이 김일성의 혁명 역사와 주체사상을 홍보하기 위한 도서관이 많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김일성, 김정일 등의 저작을 말하는 것으로 해외에 설치된 도서관의 주요 목적이 곧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혁명업적을 선전, 선동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1975년 기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하는 숭고한 위업의 요구에 맞게 도서관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자”의 내용을 보면, 여러

〈표 3〉 1970년대 '도서관' 관련 로동신문 기사

제 목	발행일	발행면/사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에 대한 해설 강의를 소말리아의 수도에 있는 <김일성도서관>에서 진행	1978.08.26	2/0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도서관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여 3대혁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자	1976.12.08	4/0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하는 숭고한 위업의 요구에 맞게 도서관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자	1975.08.07	2/0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마이니찌신문>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 <우리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환영하여 꾸바에 있는 <보천보도서관>관장이 담화발표, 수단, 이라크, 쿠웨이트, 잠비아, 레바논 신문들이 게재	1972.11.12	1/0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강반석어머니의 빛나는 생애와 혁명 활동을 형상한 전기소설 <조선의 어머니>를 읽은 독자들의 발표모임이 있었다.	1971.04.22	2/0

9) 이 모임은 기사 제목에 나타나듯이 강반석의 생애와 혁명 활동을 형상한 전기소설 <조선의 어머니>를 읽고 발표하는 모임으로, 평양 시내 근로 여성들과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참가하였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어머니 강반석녀사>라는 영화를 보고 종료하였다.

가지 북한의 도서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기사는 ‘전국도서관일군회의’를 취재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전국도서관대회’에 해당하는 전국적 규모의 도서관 관계자 모임이 북한에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회의에서 이루어진 주요 내용에는 사회주의 하에서의 도서관의 성격과 사명에 대한 이론, 도서관공급체계, 도서관전문일군양성체계, <배움의 천리길 척후대> 아동도서관 활동, 읽은 책 감상모임, ‘1만5천 페이지 책읽기’와 같은 사항들이 주로 토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도서관의 사서의 명칭을 전문일군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마지막으로 1976년 기사, “은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도서관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여 3대혁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자”라는 내용을 통해, 해방 이후 북한의 ‘국립중앙도서관’이 1946년 10월 13일 창립되었고, 이 명칭을 ‘중앙도서관’으로 계속 사용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기사가 ‘중앙도서관 창립 30돐 기념 보고회’를 다룬 것인 만큼 매 주년 기념행사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보고회에서는 특히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기술혁명을 지원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도서관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 수행에 있어서 중심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 3.2 1980년대 북한 로동신문의 도서관 관련 기사 분석

<표 4>의 1980년대 로동신문 기사들을 보면 1970년대와 거의 유사한 건수의 도서관 관련 기사들이 검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시기의 기사에 나타난 특징이 있다면 1982년 개관한 인민대학습당 관련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민대학습당은 김일성의 70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당시로서는 세계적인 규모의 도서관이다. 북한의 인민대학습당은 건축적으로도 현대적 양식에 기초하여 건축되었으며 민족적 특성을 결합하여 조형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건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인민대학습당은 당시 김정일의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과 후계자로서의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하여 만든 주체 건축물의 하나로서 개선문, 주체사상탑 등과 같이 김정일의 업적으로 꼽히는 건축물이기도 하다. 1981년 9월 28일자 기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대학습당을 돌아보시었다”라는 내용의 신문기

<표 4> 1980년대 ‘도서관’ 관련 로동신문 기사

제 목	발행일	발행면/사진
로동당시대에 일터선 전민학습의 대전당 인민대학습당 개관식 진행	1982.04.05	2/1
위대한 사랑의 대학습당	1982.04.05	5/0
당의 령도 밑에 웅장화려하게 건설된 인민대학습당	1982.04.05	6~7/10
<김일성도서관> 개관식	1982.03.21	2/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대학습당을 돌아보시었다	1981.09.28	1~3/8
서울대학교의 학장을 사퇴시키고 도서관을 폐쇄	1981.05.31	1/0



사에서 볼 수 있듯이 김일성의 현지도 내용을 1면에 사진과 함께 게재하고 2, 3면에 걸쳐 10장의 사진을 수록하여 인민대학습당의 내·외부의 시설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으며, 현지 지도를 통한 김일성의 위대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후 개관식이 진행된 1982년 4월 5일자 신문에도 2면 개관소식, 5면 추가 기사와 함께 4, 5면 전체를 사진으로 장식했다. 북한에서의 인민대학습당에 대한 비중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 우리나라의 내정을 비판하는 가운데 1981년 5월 31일자 로동신문의 “서울대학교의 학장을 사퇴시키고 도서관을 폐쇄”라는 기사에서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폐쇄되었다는 기사를 소재목으로 선정할 만큼 북한 신문에 있어 ‘도서관’의 의미가 크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82년 3월 21일자, “김일성도서관 개관식”기사에서 보면, 탄자니아에서 진행된 김일성도서관 개관식 기사를 통해 1970년대 추진된 북한의 해외 도서관 건립 지원을 통한 김일성의 혁명 역사와 주체사상 선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3 1990년대 북한 로동신문의 도서관 관련 기사 분석

〈표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990년대 기

사랑은 총 3편으로 적지만 의미 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1993년 12월 25일자의 ‘력사의 땅 회령에 인민도서관 건립’ 기사를 보면, 회령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해서 개관식을 진행한다는 것인데 지역 공공도서관의 수준을 엿볼 수 있다.

먼저 회령의 인민도서관 장서 능력은 전체 30만부 정도이고 4층 단일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관 구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학습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학습실, 그리고 불요불굴의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 동지 학습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사회과학, 자연과학 부문 열람실이 어문별 사상별 지적 수준별로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 또한 ‘인민도서관’이라는 현판 글씨가 김정일의 친필로 써 있어 도서관이 사상 학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지도자의 관심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1994년 9월 4일자 “오산덕 기슭의 인민도서관” 기사는 1993년 기사에 대한 보완적 신문기사로서 인민도서관의 사진과 함께 도서관 구성에 대한 추가적인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인민도서관의 1층에서는 도서전시장이 있고 인민학교학생열람실, 학생록음록화강의실, 고등중학교학생강의실, 서지통보실, 해포실이 있고, 2층에는 6개의 서고와 성인대출실이 있고, 3층에는 외국문도서열람실, 사전편람열람

〈표 5〉 1990년대 ‘도서관’ 관련 로동신문 기사

제 목	발행일	발행면/사진
실력 제고에 이바지 하는 도서관	1997. 11. 01	4/0
오산덕 기슭의 인민도서관	1994. 09. 04	4/1
력사의 땅 회령에 인민도서관 건립	1993. 12. 25	2/0

실, 신문잡지열람실, 록음록화강의실이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북한의 인민도서관은 학생도서관과 성인도서관이 합쳐진 병설도서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1997년 11월 1일자 ‘실력 제고에 이바지 하는 도서관’ 기사내용은 강건사리원의학대학에서 기술인재 양성사업을 도서관이 잘 추진했다는 내용인데 도서관이 학생들의 실력 향상과 과학연구사업의 중요 거점이 되었다는 기사이다. 여기에는 도서관이 교원, 학생들의 열람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고, 학부별 주제별로 사서들을 고정 배치하여 적절한 정보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서들이 과학연구사업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간 연계사업을 통해 상호대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담당별 사서들의 이름을 기재하여 칭찬하고 있다. 이는 우수 사례에 대한 선전이기는 하지만 남북한이 공히 유사한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4 2000년대 북한 로동신문의 도서관 관련 기사 분석

1970년대는 5건, 1980년대는 6건으로 빈약하였으나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도서관 관련 기사는 <표 6>과 같이 모두 26건으로 가장 많이 검색되었다. 기사의 내용들도 이전의 기사 내용에 비추어 다양하여 2000년대 북한 로동신문의 도서관 관련 기사를 분석함에 있어 몇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이 기사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5가지 주제 즉, 인민학습당 관련내용, 특수도서관 관련내용, 김

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관련 내용, 도도서관의 현대화와 전자도서관 설치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해외 도서관 소개와 김정일도서관 개관식 내용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도서관관련 기사는 모두 26건으로 가장 많아 몇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분석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민대학습당 관련 내용이다. 2000년 6월 27일 기사는 “인민대학습당에서 새로 발굴한 도서관 창립과 관련한 혁명 사적”이라는 관점에서 김일성의 중국 길림중학교 시절의 도서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항일투쟁시기 행군도서관 조직 관리업적, 해방 후 평양시립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을 지도 방문한 일화, 1990년대 중반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에 보였던 도서관 사업에 대한 열의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어 2001년 3월 22일자 “사람들이 즐겨 찾는 <애국도서열람실>” 기사에는 인민대학습당이 해외 동포들의 기증도서로 운영되는 ‘애국도서열람실’을 갖추었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2008년 3월 17일자 “다양한 형태의 열람 봉사 및 교육활동 진행” 기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열람 봉사 및 교육활동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인민대학습의 주요 봉사활동을 보도했다.

둘째, 여러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수 도서관과 관련된 내용이다. 먼저 2000년 8월 3일자 “홍성이는 가정도서관” 기사에서는 개인 가정집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주변 주민들과 학생들의 책 읽기 기쁨을 높이고 감상문 발표모임을 진행하는 한 주민을 소개한 기사다. 다음, 2004년 8월 8일자 “송고한 뜻 새겨주는 <도서열람실>” 기사에서는 정주 청년역에서 여행자들에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도서열람실

〈표 6〉 2000년대 '도서관' 관련 로동신문 기사 분석

제 목	발행일	발행면/사진
새롭게 꾸려진 황해남도도서관	2009.09.06	5/0
전자도서열람실 운영을 짜고 들어	2009.09.05	4/0
전자도서관화 사업 활발	2009.07.15	1/0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로씨야국립도서관	2009.06.12	6/0
산지의 이채로운 도서관	2009.05.31	2/0
전자도서관건설 힘 있게 추진	2009.03.11	4/0
다양한 형태의 열람 봉사 및 교육활동 진행	2008.03.17	4/0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을 참관한 외국인들의 반향	2008.01.15	6/0
전자도서관의 품격을 갖추며	2007.12.22	5/0
김책공업종합대학전자도서관참관	2007.10.03	3/1
김정일 도서관	2007.01.21	1/0
전자도서관이 전하는 사연	2006.11.05	2/0
전자도서관에서 만난 일군들	2006.09.15	3/0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을	2006.06.20	6/0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참관	2006.05.11	4/1
도서 열람의 현대화 수준을 높여	2006.04.30	5/0
김일성, 김정일 전자도서관으로 명명	2006.01.28	1/0
도서관 운영을 짜고 들어	2006.01.26	4/0
리상사회의 면모가 반영된 전자도서관	2006.01.16	4/1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새로 건설된 전자도서관과 체육관을 현지지도하시였다	2006.01.05	1/4
숭고한 뜻 새겨주는 〈도서열람실〉	2004.08.08	4/1
전자도서관 건설을 질적으로	2003.08.17	4/0
현대화 건설에 이바지 하는 도서관	2003.01.10	6/0
사람들이 즐겨 찾는 〈애국도서열람실〉	2001.03.22	4/1
흥성이는 가정도서관	2000.08.03	5/1
혁명적 도서관의 빛나는 전통	2000.06.27	2/1

이 여행자들의 호응이 높다는 기차역도서관 기사내용이다. 마지막으로 2009년 5월 31일자 “산지의 이채로운 도서관” 기사에서는 정평 갱목 생산사업소에 설치한 산채의 도서관으로 항일 유격대원처럼 학습을 전투적으로 진행하여 생산 활동을 높이고 있다는 도서관 소개내용이다. 셋째,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이 등장하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 관련 내용이다. 2003년 8월 17일자 “전자도서관 건설을 질적으로”

기사에서는 중구공공건물 사업자들이 도서관 건설 사업을 애국의 한마음으로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건설사업지원에 대한 홍보 내용을 담고 있다. 2006년 1월 5일자 “리상사회의 면모가 반영된 전자도서관” 기사에서는 1면 기사로 김정일의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 현지지도 를 담고 있다.

2006년 1월 16일자 “리상사회의 면모가 반영된 전자도서관” 기사에서 원격강의실과 국가콤포

퓨터망을 통한 사회교육 기능을 소개하며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최고 전당에 일떠선 선군시대의 창조물”, “정보기술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후속기사가 나왔다.

2006년 5월 11일자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참관” 기사에서는 주조 대사관 문화 및 친선 관계 일군들의 참관 내용, 2006년 6월 20일자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을” 기사에서는 인디아 신문에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소개 내용, 9월 15일에는 전자도서관 직원의 인터뷰 기사 등이 이어졌다. 2007년에는 남북정상회담의 행사로 우리나라 대통령부부가 각각 인민대학습당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을 참관했다는 기사도 있었고, 2008년에는 민주 콩고 국가 인사 등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을 참관한 5명의 외국인들의 반향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넷째, 도도서관의 현대화와 전자도서관 설치에 대한 내용이다. 2006년 1월 26일자 “도서관 운영을 짜고 들어” 기사에서는 강원도 도서관이 당의 혁명사상 무장과 새 세기가 요구하는 다방면 지식 소유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과 연계망 조직을 잘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2006년 4월 30일자 “도서 열람의 현대화 수준을 높여” 기사도 함경남도 도서관에서 도서관 목록 및 초록 검색을 위한 전산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성공 사례를 소개했고, 2007년 12월 22일자 “전자도서관의 품격을 갖추며” 기사도 자강도 도서관의 전자도서관화를 위한 활동들을 널리 알리고자 했다. 이어 2009년 3월 11일자 “전자도서관 건설 힘있게 추진” 기사에서 황해북도 사리원시 중심의 전자도서관과 도

내 도서관 간의 연계사업을 비중있게 다루었고, 2009년 9월 6일자 “새롭게 꾸려진 황해남도도서관” 기사에서도 황해남도 도서관이 정보봉사기지로서 전자도서관 사업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도도서관은 아니지만 2009년 9월 5일자 “전자도서열람실 운영을 짜고들어” 기사에서는 라선시 남선중학교의 교육사업 정보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 시기의 도서관 정보화사업이 도서관계 핵심 사업임을 많은 기사로서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2009년 7월 15일자 “전자도서관화 사업 활발”이라는 기사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기사에서 보면, 북한은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하여 중앙과학기술기관들의 주문봉사와 원격교육을 통해 강성대국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해외 도서관 소개와 김정일도서관 개관식 내용이다. 2003년 1월 10일자 “현대화 건설에 이바지 하는 도서관” 기사에는 중국의 국가도서관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인 베이징에 있는 수도도서관을, 2009년 6월 12일자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로씨야국립도서관” 기사에서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국립도서관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2006년 1월 28일자 “김일성, 김정일 전자도서관으로 명명” 기사에서 필리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김일성, 김정일 전자도서관으로 명명되고 있다는 내용과, 2007년 1월 21일자 “김정일도서관” 기사에서는 에콰도르에 김정일 도서관이 개관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 3.5 2010년 이후 북한 로동신문의 도서관 관련 기사 분석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도서관관련 기사는 <표 7>과 같이 모두 12건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많은 기사가 검색되었다. 또한 이 시기를 나는 것은 10년 단위로 내용 분석을 하다가 3년의 기간을 추가한 것은 2011년 12월 김정일 사후의 변화를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도서관관련 기사는 모두 12건으로 이 시기에 검색된 기사의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건립과 김정일 현지도도 관련 내용, 김책공업종합대학과 각 도 및 대학의 전자도서관 개관관련 내용, 그리고 해외 도서관 개관관련 소식 및 기타 기사내용으로 나누어 기사를 분석하였다.

첫째,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건립과 김

정일의 현지도도 관련 내용이다. 2010년 4월 13일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새로 건설된 전자도서관을 현지도도하시였다” 기사는 전체 신문이 4면 증면된 가운데 9면까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새로 건설된 전자도서관을 현지도도하시였다”라는 기사 제목으로 채워졌다. 여기에 실린 사진만도 73컷으로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건설이 북한 전체 사회에 주는 의미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2011년 1월 22일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황해북도인민학습당을 현지도도하시였다.” 황해북도 인민학습당을 현지도한 기사도 크게 보도되었다. 인민학습당의 실체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도서관보다 좀 더 크고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2010년 이후의 '도서관' 관련 기사 분석

제 목	발행일	발행면/사진
<<도서관 기념비>>	2012.12.08	6/0
<<주체도서관>> 개설	2012.10.24	6/0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대학습당에 2300여종에 1만 8800여부의 도서들과 자료들을 보내시였다	2012.09.30	1/0
조선 평양-중국 연변친선도서관 개관	2012.09.21	6/0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에 새로 꾸려진 전자도서관을 돌아보시였다	2012.09.01	1/0
현대적인 도서관건설 힘있게 추진	2012.07.14	1/0
평안남도도서관 개관식 진행	2012.04.12	8/0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황해북도인민학습당을 현지도하시였다	2011.01.22	4/3
전자도서관이 일떠선 사연	2010.12.08	2/0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새로 건설된 전자도서관을 현지도하시였다	2010.04.13	1~9/73
<김정숙도서관>	2010.03.30	6/0
호평 받는 열람봉사 및 교육활동	2010.02.21	4/0

둘째, 김책공업종합대학과 각 도 및 대학의 전자도서관 개관 관련 내용이다. 2010년 2월 21일자 “호평 받는 열람봉사 및 교육활동” 기사는 인민대학습당이 초록작업, 과학기술 강의와 새 기술 통보, 과학기술 강습 등의 열람봉사 및 교육활동이 호평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고, 2010년 12월 8일자 “전자도서관이 일떠선 사연” 기사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숨은 공로자가 김정일이라는 것을 선전하고 있다.

2012년 4월 12일자 “평안남도도서관 개관식 진행” 기사는 김정일 사후 첫 번째 기사로 김일성탄생 100주년기념으로 수천 명의 수용 능력을 갖고 있는 평안남도도서관이 개관되어 전자열람실, 원격강의실, 외국어학습실 등이 잘 꾸려져 있다는 내용이다. 이어 2012년 7월 14일자 “현대적인 도서관건설 힘있게 추진” 기사에서는 청진광산금속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 함흥의학대학 등의 현대적인 도서관이 힘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또한 2012년 9월 1일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에 새로 꾸려진 전자도서관을 돌아보시었다” 기사에서는 최초로 김정은이 현지도로 나선 도서관에 대해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에 새로 꾸려진 전자도서관을 돌아보시었다”라는 제목의 1면 톱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3부자가 도서관을 현지도 했고, 이를 1면 전체기사 이상으로 내 보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012년 9월 30일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대학습당에 2,300여중에 1만 8,800여부의 도서들과 자료들을 보내시었다” 기사에서는 김

정은이 “인민대학습당에 2,300여중에 1만 8,800여부의 도서들과 자료들을 보내시었다”라고 보도함으로써 과거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방식의 자료 입수와 제공 형태가 계속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셋째, 해외 도서관 개관 관련 소식 및 기타 기사 내용이다. 2010년 3월 30일자 “〈김정숙도서관〉” 기사에는 페루에 ‘김정숙도서관’이 설립되어 개관식이 진행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어 2012년 9월 21일자 “조선 평양-중국 연변 친선도서관 개관” 기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64돛을 기념하여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연변친선도서관이 개관되었고, 이어 2012년 10월 24일자 “〈주체도서관〉 개설” 기사에는 브라질 주체사상연구센터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체도서관’을 개설했다는 기사 내용도 있다.

또한 2012년 12월 8일자 “〈도서관 기념비〉” 기사에는 독일 베를린의 베벨플라쯔 광장에 나치를 고발하는 도서관 기념비가 세워졌었다는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이 시기는 김일성의 사망 후로 해외 도서관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도서관 관련 주요 기사의 의미와 유형 분석

로동신문 기사를 통해 본 북한의 도서관의 현황과 특징은 이론적 배경으로서 2장에서 살펴본 북한 도서관의 특징과 운영체제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과 유형별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 4.1 연대별 주제 분석

북한 신문의 특성상 국내 신문의 기술 방식과는 차이가 커서 일정한 주제 분류나 분석틀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전반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 그 흐름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대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82년 인민대학습당 개관, 2010년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개관, 2012년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 전자도서관 개관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 자격으로 현지 지도한 바 있다. 이는 신문의 1면 전체 톱기사와 후속 기사로 계속 보도될 만큼 북한 지도자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북한 사회에 도서관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북한이 2000년대 들어 강성대국의 출발점으로 모든 도서관의 현대화와 전자도서관 구축에 공을 들여왔고 이는 북한의 '국가컴퓨터망'을 통해 인민대학습당, 김일성종합대학, 그리고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중앙의 과학기술기관과 도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으로 이어지는 연계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계망을 통한 주문봉사와 원격교육 시스템의 도입이 무엇보다 강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북한의 도서관 사업은 중앙과학기술기관 외에도 각 지역의 가정도서관, 사업소 단위의 직장 도서관, 기차역의 도서열람실과 같은 작은 규모의 도서관 설치도 추진함으로써 정치사상 교육과 생산성 향상에 일정 수준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북한은 대외적으로도 김일성의 혁명역사와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도구로써 도서관 설

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비동맹국가나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1970년대 이후 최근까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이름을 딴 도서관을 현지에서 개관하게 하거나 홈페이지 명칭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도서관과 출판물이 대외 선전에도 크게 활용되고 있는 국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북한의 도서관 역사는 김일성, 김정일의 업적으로 치부되고 있는 한편, 일부 내용들은 사실관계를 밝혀주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북한의 평양시립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역사가 일부 소개되었고 도서관의 주요 서비스 내용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도서관 서비스의 본질적인 내용들은 남북한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 4.2 유형별 주제 분석

북한 로동신문의 내용이나 형태를 보고 국내 신문과 같이 정형화된 유형에 따라 기사의 성격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면별 구분과 사진 게재여부만을 판단하였다.

북한의 로동신문은 기본적으로 6면으로 편집되며 특별한 경우에만 증면된다. 면별 구성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면은 정치(지도자 동정과 우상화 기사 및 사설, 외국 여론 단신)면이고, 2면은 혁명전통교양과 계급교양자료 당일군의 활동 소식이 실린다. 3면은 지도자 우상화 교육과 일화 등이 주로 실리고 4면은 전국 경제 일군들의 이야기나 미담기사, 노동통신원 기사, 문화공연소식, 체육소식으로 편성된다. 5면은 남한 소식이고 6면은 국제면이지만 상당

〈표 8〉 ‘도서관’ 관련 기사의 면별 게재 건수

구분	1면	2면	3면	4면	5면	6면	기타	계
면수	11	11	4	15	6	10	5	62

히 유동적이다.<sup>10)</sup> ‘도서관’ 관련 기사는 문화면, 곧 4면에 주로 실려야 하지만 전반적인 사상은 그렇지 않다. 〈표 8〉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관’ 관련 기사는 4면에 다소 많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면에 골고루 구성되어 있다. 1면에는 김정일의 현지 지도와 같은 대형사건 외에도 해외 김정일 도서관 건립과 같은 단신이 주로 소개되고 있고, 2면은 도서관 관련 숨은 일화나 사연을 소개하는 형식의 기사가 많다. 3면이 가장 적는데 도서관 참관 사실이나 증면 특집기사로 활용되었다. 4면은 경제와 문화, 체육을 일반적으로 다루는 면으로 ‘도서관’ 관련 기사도 가장 많았다.

도서관 개관과 운영 및 사업소개, 봉사 활동 등 도서관 관련 본질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5면도 도서관 참관이나 증면 시에 칼럼 형식의 기사로 활용되었고, 6면은 외국 도서관 소개와 김정일 도서관 등의 해외 개관 소식을 다루고 있다. 기타 내용은 증면된 7면에서 10면까지를 말하는데 1982년 인민대학습당 개관, 2010년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개관 시에 각각 8면과 10면으로 제작된 바 있다.

따라서 ‘도서관’ 관련 기사는 기본 내용으로 볼 때, 문화면에 주로 게재되어야 하나 북한 정치사상적 배경과 특징으로 인해 1, 2면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면에서 게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신문 전체에 있어 사진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단조로운 구성으로 사진 게재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는 사진사용이 없었고, 1980년대 사진은 19컷이 있으나 모두 인민대학습당 개관 관련 사진들이었다. 1990년대 사진도 인민도서관 1컷에 그쳤다. 2000년대 들어와 다소 다양해졌지만 11컷 대부분도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에 집중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사진은 76컷에 달하나 이 역시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73컷과 황해북도 인민학습당 3컷으로 국가 대표급 도서관에 편중되어 있어 도서관 문화의 다양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신문 편성에 있어서도 그 편집형태와 구성이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북한의 대표적인 공산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이 1971년부터 2012년까지 발행한 신문 전체 기사를 대상으로 도서관 관련 기사들을 시기별, 형태별로 나누어 로동신문에 비추어진 도서관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하는 취지의 연구로 북한 도서관의 특성과 특징을 정리하기 전에 북한의 언론관과 교육관을 소개하

10) [2014.1.2 검색] <[http://fomos.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talk\\_gossip&wr\\_id=465942](http://fomos.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talk_gossip&wr_id=465942)>



고 이와 같은 언론관과 교육관에 따른 북한 도서관의 특징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북한 신문매체들은 1945년 10월 로동당 창건 이후 당 기관지를 중심으로 해서 내각 기관지, 근로단체 기관지 등이 다양하게 발간되었으나 주요 내용은 당 노선과 정책을 구현하는 것을 일차적인 사명으로 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부분적으로 각 신문의 특성에 맞게 편집되지만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의 원칙을 지키고 철저히 당의 지도를 받고 있는 점에서 볼 때 각 신문 내용의 본질 면에서는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교육은 근본적으로 1977년 9월 5일 공포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따라 수행된다. 여기에서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이기주의를 없애고,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과업을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고 제시함으로써 충직한 혁명투사로서 필요한 소양을 길러주는데 그 교육 목표를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005년 12월에는 새로운 교육법을 채택하여 그동안의 교육에 대한 각종 교시와 지침을 종합함으로써 교육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은 이러한 이념과 목표에 따라 계급의식을 고양, 공산주의 인간으로 육성하며 또한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일하고 생활하며, 사회와 인민의 이익 그리고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 바칠 것을 교양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영도 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하도록 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사실들은 북한의 로동신문 기사 가운데 도서관과 관련이 있는 기사

들을 조사 분석하여 살펴본 바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로동신문 기사를 통해 투영된 북한 도서관의 현황과 특징에 기반을 두어 북한 도서관의 성격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도서관은 바로 이러한 교육 이념을 지원하는 실행기관으로서 설립 목적을 갖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도서관'은 "책을 비롯한 출판물들을 정비보관하고 사람들이 널리 읽을 수 있도록 빌려주는 문화기관, 우리나라 도서관은 도서선전과 책 읽기지도를 통하여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과정을 촉진하며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임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힘 있는 수단이며 나라의 귀중한 문헌재부를 보관 관리하는 중요한 문화기관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 것이다.

이상에서 북한의 도서관은 사회적 문화교양기관을 자처하고 있지만 그 근본 목적과 기능은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혁명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의 외형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체제 구조상 북한의 도서관을 순수한 의미의 학술적 가치를 갖는 도서관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북한의 도서관은 당 중심의 국가도서관 체계이다. 조선로동당 교육위원회의 정책과 지휘 아래 내각 교육성의 교육위원회로부터 각 지역 및 지방도서관에 이르게 되는데, 지방 도서관은 해당 지역의 행정위원회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다. 특히 다른 부처와 달리 중앙당 및 해당 지역 당위원회로부터 철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북한의 출판물이 교육과 함께 선전, 선동의 정치도구로써 활용

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서관은 도서관 유형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에 해당하는 군중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등 학술기관 성격의 과학도서관으로 대별된다. 또한 소속에 따라 국가, 도, 시, 구역도서관 등 국가도서관망과 대학도서관 등 기관·기업소 도서관망 그리고 사회협동단체도서관망 등으로 나누어 대상에 따른 봉사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국가도서관망과는 별도로 취급하고 있는 군부대 도서관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도서관별 종류와 도서관망은 씨와 날처럼 연결되어 있다. 즉, 북한의 도서관망은 도서관의 유형과 소속에 따라 일정한 계열로 묶어놓은 도서관들의 체계로 정의된다. 각 도서관들은 대상 독자계층,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 소장 출판물의 특성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별에 따라 일정한 계열로 묶어놓은 도서관들의 체계를 유형별 도서관망이라고 한다. 이렇게 유형별 도서관망과 소속별 도서관망이 하나로 결합되어 전국적인 도서관망을 이룬다. 북한에서는 지역별 배치원칙과 인민경제부문별 배치원칙에 따라 설치된 여러 가지 유형의 도서관들이 정연한 지도관리체계에

에 따라 전국적인 도서관망을 이루고 있다.

물론 북한 도서관은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로서의 핵심 기능과 일선 현장에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혁신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고,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있어서도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부분 주체사상 학습과 당의 정책적 구현의 수단으로 도서관이 이용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도서관 문화의 다양성 보다는 사상학습에 매몰되어 있는 도서관 문화의 왜곡현상이 적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인민대학습당이나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등 사회주의국가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강성대국을 향한 전진 기지로서 도서관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도서관의 본질적 가치와 위상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서 북한 도서관의 정치 사상적 특징을 다각적으로 밝힌 것 이외에 또 하나의 연구결과가 있다면 북한 도서관의 전반적인 흐름과 일부 역사적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북한의 국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개별 도서관의 역사와 주요 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1] 고정수. 2007. 원격교육체계의 일반적 특성. 『인민교육』, 3: 64.
- [2] 공업출판사 편. 2006. 김책공업대학 전자도서관. 『조선건축』, 2: 21-22.
- [3] 김기현. 2001. 인민대학습당·광명홈페이지. 『민족21』, 8: 40-41.
- [4] 김봉수, 박영숙. 2007. 김책공업대학 전자도서관과 체육관의 건설명시설계의 특징. 『조선건축』, 4: 23-24.

- [5] 김용기. 2005. 전자도서관의 발전 추세와 전망. 『예술교육』, 4: 32.
- [6] 김응섭. 1966. 『편성 이론과 실천』. 평양: 출판인쇄과학연구소.
- [7] 김일성. 1986. 『김일성 저작집 32(1977.1-1977.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8] 로동신문사 편. 1971-2012. 『로동신문』. 평양: 로동신문사.
- [9] 리종현. 2008. 대학 전자도서관 전자열람실의 규모계획방법. 『조선건축』, 1: 61.
- [10] 배순재, 라두임. 1967. 『신문리론』. 동경: 재일본조선언론출판인협회.
- [11] 백과사전출판사 편. 1998. 『조선대백과사전』, 6: 670.
- [12] 백과사전출판사 편. 2000. 『조선대백과사전』, 15: 688.
- [13] 사회과학출판사 편. 1992. 『조선말대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14] 송승섭. 1994. 한국 신문에 나타난 '도서관' 관련 기사에 관한 분석적 연구. 『도서관문화』, 35(2): 93-124.
- [15] 송승섭. 2008. 『북한 도서관의 이해』.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http://fomos.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talk\\_gossip&wr\\_id=465942](http://fomos.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talk_gossip&wr_id=465942)> [cited 2013. 12. 2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o, Jeong-su. 2007. "General Characteristic of Distance Education System." *Inmin Education*, 3: 64.
- [2] Industry Publication. 2006. "Kimchaik University of Technology Electronic Library." *Josen Construction*, 2: 21-22.
- [3] Kim, Ki-Hun. 2001. "Great Peoples Study Center Homepage." *Minjok21*, 8: 40-41.
- [4] Kim, Bong-Su and Park, Young-Suk. 2007. "The Characteristic of Construction Design to Electronic Library & Gymnasium of Kimchaik University of Technology." *Josen Construction*, 4: 23-24.
- [5] Kim, Yeong-Ki. 2005. "Perspective & Development of Electronic Library." *Arts Education*, 4: 32.
- [6] Kim, Yeong-Sub. 1966. *Editing Theory and Implement*. Pyeongyang: Institute of Publication Science.
- [7] Kim, Il-Sung. 1986. *Kim Il-Sung's Collected Writings, 32(1977.1-1977.12)*. Pyeongyang: Josen labor Party Publication.
- [8] The Rodong Newspaper. 1971-2012. *Rodong Shinmun*. Pyeongyang: The Rodong Newspaper.
- [9] Lee, Jong-Hyun. 2008. "Size Design Method of Academy Electronic Reading Room." *Joseon*

*Construction*, 1: 61.

- [10] Bae, Sun-Jae and Ra, Du-Im, 1967. *The Theory of Newspaper*. Tokyo: Association of Japanese Joseon press & publisher.
- [11] Encyclopedia Publication, 1998. *Encyclopedia of Joseon*, 6: 670.
- [12] Encyclopedia Publication, 2000. *Encyclopedia of Joseon*, 15: 688.
- [13] Social Science Publication, 1992. *The Great Dictionary of Joseon-mal (Korean language)(1)*. Pyeongyang: Social Science Publication, 760.
- [14] Song, Sung-Seob, 1994. "An Analysis on the Library-Related Articles in the Shinmun of Korea," *Library Culture*, 35(2): 93-124.
- [15] Song, Sung-Seob, 2008.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Library*. Seoul: Cooperation of Korea Library.
- <[http://fomos.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talk\\_gossip&wr\\_id=465942](http://fomos.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talk_gossip&wr_id=465942)> [cited 2013. 12. 20.]